

## 특집 : 종교개혁과 현대 교회

### 종교개혁은

### 복음의 재발전

정진경  
 <서울신학대학교무과장>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는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천년 전 나사렛의 예수가 탄생한 날을 제외하고 이 날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날이다. 사실에 있어서 근대사가 시작하기는 1453년의 동로마 제국의 멸망도 아니고, 1492년 코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도 아니고, 1455년의 인쇄기 발명도 아니다. 그것은 1517년 루터의 로마 법황청이 발매한 사죄권에 대한 반대에서 시작되었다. 이날에 프로테스탄트는 시작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 이날에 근세철학과 근세사상, 근대과학과 근대문학, 대외정치와 신국가 그의 근대인이 행유하는 모든 제도 문물이 시작된 것이다. 바로 이날이 독일이 낳은 광부의 아들 마틴·루터가 윌헨베르그 성내 교회 정문에 95개 조문을 붙이고 모든 사람에게 토론을 제기했던 날이다. 역사상 이 운동을 가리켜서 개혁(Reformation)이라고 한다. 이것은 실로 전 구라파 천지에 시작된 최대의 개혁이었다. 단순히 한 나라 혹은 어떤 특수한 방면에 있어서의 개혁만이 아니라 문명세계 전반에 걸친 개혁이었다. 고로 이것을 The Reformation(유일한 개혁)이라 불려서 잘못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때 루터의 제시한 95개 조문은 뜻밖에도 전 독일 사람들에게 큰 자극을 주었고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게 되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이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 구라파에 퍼지게 되었다. 슈밋히 교회 목사였던 쾰빙글리는 그 이듬해인 1518년 부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기 교회 안에 있던 여러가지 조각상들을 전부 철거하였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루터보다 더 철저히 개혁의 필요성을 부르짖다가 1531년 10월 11일에 카펠에서 로마 천주교군의 창에 찢려 전사했다. 그리고 제네바에서는 불란서 사람 화렐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다가 1536년 부터는 칼빈이 그곳에 이주하게 되어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되어 개혁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후 1541년 부터는 칼빈이 단독으로 「하나님에게만 영광」이라는 표

어 밑에 철저한 개혁운동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곳에서 칼빈에게 공부한 존·낙스는 칼빈의 개혁운동을 본받아 본국인 스코트랜드에 돌아가서 1560년에 처음으로 장로교회를 조직하는데 성공하였고 칼빈에게서 배운 개혁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였다. 그리고 개혁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화란, 벨기에, 영국 등 1560년 까지는 전 구라파에 전파되어 로마 카톨릭 지지자와 개혁운동 지지자로 갈라지게 되었다. 한 수도사에 지나지 않던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행한 하나의 거사가 발단이 되어 이렇게 전 세계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는 큰 사건으로 발전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그러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은 무엇인가? 개혁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서가 가르치는 복음이 본질을 바로 이해 함으로써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게 하고 천년동안의 중세기 로마교회의 모든 부패를 막고 참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자는데 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재발견이요, 복음의 재발견 운동이다. 루터의 놀라운 죄책과의 투쟁은 복음의 재발견으로 끝을 맺었다. 이런 복음의 재발견은 크게 세 가지 원리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종교개혁은 성서의 재발견이다. 종교개혁은 잃었던 성서를 다시 발견하였고, 성서를 다시 열어 놓은 것이다. 성서의 재발견이란 말은 특수제급 만이 볼 수 있던 성서가 일반 평민에게까지 개방되었고, 인간의 이성과 복잡한 추리방법으로 해석되던 성서가 그 자체에 의하여 해석되게 되었다. 실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만을 크리스찬 신앙의 유일한

규범으로 삼고, 교리의 척도로 삼았다. 이 성서만이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한 권위이며,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성서 밖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교회의 유전 교황의 교서, 교회의 규칙 등이 성서를 대항하거나 보충할 수 없다. 성서만이 구원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전적으로 성서만의 진리를 주장하게 되었다. 즉 '성서만(solasciptura)이란 원리는 복음만(Gospel alone)이란 원리이며, 복음만이란 말은 그리스도만이란 말과 같다. 그리스도 중심의 성서 추구는 루터 전 천주교 신학에 대한 일대 변혁이다. 그렇다고 개혁 이전에는 전적으로 성서 연구가 무시되었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개혁 이전에도 성서연구는 있었다. 다만 성서 안에 깊이 숨어 있는 대진리를 재발견 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면 재발견한 진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율법적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롬 3 : 28)는 단순한 진리이다. 말을 바꾸어 한다면 결국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재발견이다. 말을 다시 바꾸어 한다면 바울 신앙의 부흥이요 재발견이다. 이 단순한 진리의 발견에 의하여서 낡은 구라파는 무너지고 새로운 구라파가 일어난 것이다. 중고시대 정신은 율법의 행위에 있었다. 이 정신 밑에 있는 인간은 언제까지나 미성년자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그리고 중세기의 최대 문제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엄수함으로써 형벌을 면하나 하는 것이다. 고로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추궁으로 구라파는 일대 사원화(寺院

化)가 되었다. 그리스도는 두려운 재판관이요, 복음은 엄밀한 율법이다. 이것을 엄밀히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불에서 고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천여년에 걸친 중세기 사람들은 이런 예민한 양심과 치열한 미래관념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러므로 이런 미래관념과 양심은 허다한 미신을 만들어 내는 원인이 되어 승려계급으로 하여금 이에 편승할 기회를 제공하였다. 지나치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결과 율법과 교회에 속박을 받는 노예가 되어 버렸다. 경신(敬神), 미래관념, 양심 모두 귀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그 속박에서 석방하고 영혼의 자유를 제공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자유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하여 제공된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의 선언이었다.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이 자유에 대한 해설이다. 바울 사상의 진수는 바로 이것이다. 그는 이런 자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제는 율법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물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 3: 21-28). 루터는 바울에게 전해진 이 자유의 복음을 재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재발견된 진리는 루터를 율법의 노예의 멍에(갈 5: 1)에서 해방시킴과 동시에 교회의 압제와 중세기의 암흑으로부터 구출한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를 암흑에서 광명으로 인도하게 된 동기가 된 것이다.

둘째로 개혁정신은 하나님의 은총의 재발견이다. 로마 천주교회의 개혁과 신학의 근본 차이는 은총만(sola gratia)이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인류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며 결코 사람의 어떤 공로나 선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즉 구원이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총족한 업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서만 우리의 것이 되며 아무 인간적인 공적없이 믿음만을 통하여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은총은 인간안에 있는 어떤 주어진 바탕이나 덕성이나 힘으로 규정하며 혹은“만”이라는 말을 거부하고 사람의 의인(義認)을 일부 하나님에게 일부는 인간에게 돌린다. 그러나 은총은 전적인 것이지 부분적인 것이 아니다. 그 전적인 은총이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신인간의 막힌 담을 없애게 주신다는 뜻이다. 본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인 사이에 쌓아 놓았던 담벽을 예수는 십자가를 통하여 허물어 버렸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다시 이러한 담을 쌓아놓고 교황과 신부가 담이 되어 신자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 막아 버렸다. 이 담을 루터는 다시 허려 버린 것이다. 그래서 루터는 만인제사작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진리를 가르쳐 주었다. 즉 신자는 누구든지 신부나 목사 같은 계급을 통하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은총에 대한 강조와 재인식이야말로 잃었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다시 찾게한 종교개혁의 큰 공헌이다.

세계로 개혁정신의 근본 원리는 신앙의 재발견이다. 종교개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신앙으로 돌아 가게 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것으로 받을 수 있는 손이다. 믿음 외는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수 없으므로 루터는 고백하기를 「이 한 조항! 즉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나의 마음을 지배한다. 나의 모든 신학사상은 받이나 낮이나 이 조항에서 나오고 이것을 돌며 또한 늘 여기에 되돌아 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믿음 만(sola fide)의 원리는 필연적으로 은총에서 나온 것이다. 만일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은총에 의해서 되어진다면 은총은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공적이 될만한 원인을 배제하며, 다만 믿음으로 될 수 있다. 사람은 아무 업적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값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 카톨릭에

서는 '믿음만'이라는 문자는 즐겨 수락했으나 그 정신은 수락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받으나 그러나 선을 행하는 믿음이어야 하며, 그러므로 공격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설명한 개혁정신의 새가지 재발견을 한마디로 종합하여 설명한다면 그것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로의 신학의 재발견이다. 그래서 현대 루터 연구 학자들 중의 어떤 이는 그의 업적을 코페르니스적인 혁명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 개념에 있어서 루터가 가져온 변동을 물리학적 우주의 개념에 있어서 코페르니스가 가져온 변동에 비한 것이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스가 지구 중심적 개념에서 시작하여 태양 중심적 개념에 도달한 것과 마찬가지로 루터는 인간 중심적 개념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마침내 하나님 중심적 개념에 도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기 중심적인 종교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된다. 그러나 신 중심의 종교에서는 모든 것의 최후적인 독단자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된다. 이것을 종교적인 특수한 용어로 말한다면 자기 중심적인 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나 하나님 중심의 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신다. 루터가 중세기 카톨릭 교회에서 발견한 종교는 그 안에 어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중심의 흔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종교였다. 종교 역사에 있어서 루터의 중요성은 그가 하나님 중심의 경향을 충분히 그리고 명백하게 주장한데 있다. 루터는 오랜 고민 끝에 자

기 중심적인 모색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의 대답을 받았다고 그의 경험을 말해준다. 루터의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를 재발견한 것은 원시 그리스도교의 신 중심성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그것이 그의 전 사상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가 카톨릭교회를 반대한 것은 결국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다. 카톨릭의 그리스도교관을 분석해 보면 종교적 무대의 중심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루터의 개혁적인 그리스도교관에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루터는 「모든 것보다 먼저 모든 것보다 뛰어나게 그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에 영원히 이바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이익을 위함도 아니고 또 일시적이든 영원적이든 우리의 축복이나 혹은 어떤 좋은 것을 위함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루터나 칼빈의 표어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soli Deo Gloria)였다.

나는 위에서 개혁정신은 성서와 하나님의 은총과 신앙의 재발견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복음의 재발견이며, 복음의 재발견은 결국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진리를 말한다. 이제 우리는 루터가 발견한 개혁정신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개혁자들의 정신적인 후계자이다. 개혁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어느 시대나 계속해야 한다. 이 운동을 혁명(Revolution)이라 부르지 않고 개혁(Reformation)이라 부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종교개혁자들이 거론하는 로마 천주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시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로마 카톨릭에서 그릇되게 가르치는 것만을 수정해서 성서에 입각한 기독교를 건설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개혁교회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비판하고 현실교회의 그릇됨에 프로테스트 하는데 그 생명이 있다. 만일 개혁교회가 계속적인 프로테스트를 포기한다면 프로테스탄티즘의 생명은 없어진다. 중세 교회가 그 현실에 만족하고 비대한 교세에 이끌려 현실과 타협하는 교리를 만들고 해석하고 교회의 의식제도를 결정했기 때문에 중세 교회는 썩을대로 썩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고로 개혁정신의 후계자인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중심의 위치나 그 내용은 인간 중심적이고, 신성한 모양은 있으나 능이 없고 믿음을 강조하면서도 가장 많이 인간의 업적을 강조하는 오늘날 교회의 비복음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재발견하는 개혁운동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교회는 흐르는 물같이 부패하지 않고 항상 새로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도서

- ① 프로테스탄트 신학원론 P.S. Watson. 저 이장식역 1962
- ② Luther's Theology, F.E. Mayer 1956
- ③ 루타—神學概論 L.Pinomaa. 石居正己譯 1968 聖文社
- ④ A Compend of Luther's Theology Hugh T. Kerr, Jr. Westminster Press
- ⑤ 루터와 종교개혁, 지원용저, 1965. 컨월디아사